



진안군 안전면, 릴레이 업무협약 체결

안전면(면장 이정희)은 안전책 주소갯기 및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안전면 기관 사회단체를 방문하여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릴레이 업무 협약은 최근 국가적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는 등 지역 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 심화로 유관기관 간 인구위기 인식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통근·통학·업무 등의 이유로 안전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 인구들이 안전책 주소갯기 동참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적극 참여를 유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면 관내 기관단체장들은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공동 대응 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구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면 안전면장은 "릴레이 업무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입을 유도하고 안전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김제 백구면 복지기동대, 화재감지기 설치 봉사

김제시 백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유종환)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과 함께 지난달 28일, 여름철 취약계층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전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무더위로 산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취약 가구 37세대를 마을 이장,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발굴해, 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유종환 복지기동대장은 "화재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일수록 화재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주택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전달이 각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탁구교실 초·중급반, 풍물놀이로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풍물놀이는 금구면 문화복지관에서, 탁구교실 초·중급반은 금구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다. 최홍영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일근 금구면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해 많은 면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첨단농업 연구과제 선정

45억8700만원 지원... 김태곤·윤경담 교수 등 신기후체계 대응 노지스마트농업 연구 수행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김태곤 교수팀이 한경대, 강원대 등과 컨소시엄으로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 사업 중 '기후 및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농경지 양분유출, 농업용수 수질영향·취약성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이 연구과제에 선정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김태곤 교수



윤경담 교수

또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류영렬 교수팀과 함께 원격탐사 컨소시엄을 이뤄 '원격탐사와 작물모형을 활용한 전지구 주요 곡물지역 작황 추정 기술 고도화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관련 연구과제도 수행했다. 특히 이번 선정된 연구과제는 2027년까지 4년간 총 45억8,700만 원을 지원받아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양분유출 변화 및 취약성 평가, 국외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및 작황 조기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정기반 모형 활용, 농경지 양분유출 및 농업용수 수질 평가기술 개발, △전지구단위 양분유출 및 농업용수 수질 영향·취약성 평가를 위한 AI 기반 메타모델링 기술 개발, △농경지 양분유출·농업용수 수질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및 적응기술 동적 시각화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계한 농경지 토지이용 및 작

부체계 정보 시스템 개발, △인력역량사 기반 전지구 주요 곡물 재배면적 및 생산성 추정 기술 고도화,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작황 추정 평가기술 개발, △주요 곡물 생산지역에 대한 작황 정보 포출 시스템 설계 및 시범 체계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스마트팜학과 윤경담 교수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북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주요작물 예측 모델 개발' 과제에 선정돼 지역 주요 작물의 미래 재배면적 변동 지도 작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곤 스마트팜학과장은 "이번 선정 과제는 노지스마트팜의 주요한 연구주제로, 우리학과의 우수한 연구역량의 성취"라며 "과제 수행을 통하여 미래인재 육성과 신기후변화 대응 기술력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는 스마트팜 관련 국내 최초의 첨단신설학과로 202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학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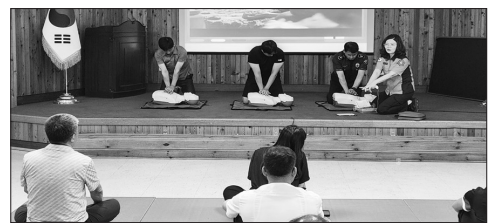


임실경찰서, 정년퇴직자 오찬 간담회 가져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는 경찰서장과 각 과장, 6월 정년 퇴직을 맞이하는 2명의 경찰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여 년간의 헌신을 기념하는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퇴직 기념 명패 및 각 퇴직자를 분담 피규어·꽃다발 등을 전달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두 분을 위해 많은 직원이 모여 경찰서 현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관내 외부식당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퇴직 예정 경찰관인 임경환 신병과출소장은 "경찰생활의 마무리를 영예롭게 만들어주시는 서장님과 임실경찰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공직자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지만, 보내주시는 축하와 축복을 절대 잊지 않고 영원한 경찰관으로서 임실경찰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은 서장은 "30여 년의 경찰생활 동안 군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한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경찰관으로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큰 도움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당부

남원소방서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야외 노동자들은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햇빛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모자, 자외선 차단제 사용 △햇볕에 장시간 노출 피하기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지난달 27일 전직원 대상으로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수소방서 교육·홍보팀 강현경 소방위가 강사로 나서 최근 심폐소생술 활용사례와 중요성 학습, 애니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시 하임리히법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김홍훈 경찰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심장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 및 실습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석대,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 '우승' 쾌거

우석대학교 스포츠단 소속 여자 배구부가 '2024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에 따르면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단양군과 대한항공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단양국민체육센터 일원에서 진행됐다. 여대부 B조에 속한 우석대는 예선 1위로 4강에 올라 A조 2위인 포항공과대를 3:0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열린 결승에서 우석대는 광주여대를 3:0으로 제압하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이번 대회 예선부터 결승까지 4전 전승을 기록하며 여대부 최강임을 증명했다. 정기남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위기 상황에서 더욱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면서 "내달 진행되는 연맹 2차전인 고상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 코치가 최우수지도상을, 함지



현(체육학과 4년)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또 김선영(체육학과 4년) 선수는 세터상을, 이재은(체육학과 3년) 선수는 리베로상을, 송예담(체육학과 2년) 선수는 블로킹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삼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645-9835 중앙지사 010-8088-8874 인후지사 246-8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89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868-9823 남원지사 632-3986 김제지사 546-1227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8989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